

가속하는 「전자적 정보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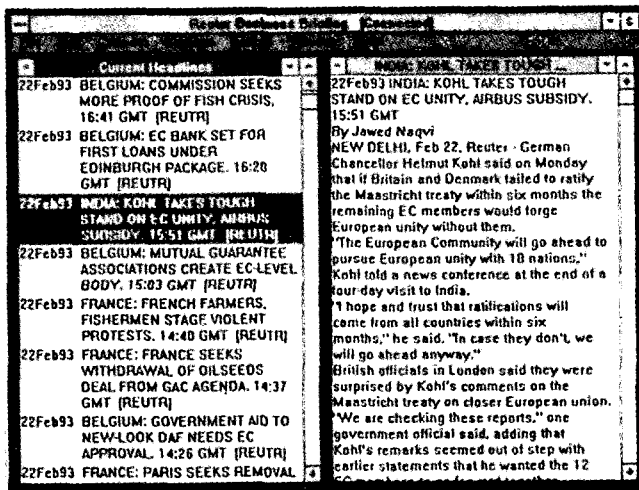
WASHINGTON POST社와 無線通信社인 AMERICAN PERSONAL COMMUNICATION社는 클린턴대통령에게 전자판 POST紙의 프로토타이프를 實演하였다. 가정에서 또는 이동 중에 기사를 읽고 사진, 비디오,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도 가능하다. PC를 통하여 특정한 테마의 정보도 요구할 수

OF AMERICA)의 도널드 뉴하우스회장이 지난 6월 NAA 마케팅회의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근래 신문과 잡지에 있어서 기사의 大小를 불문하고 정보산업을 둘러싼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제창이 연일 보도되고 있고, 단지 보도되는 것만이 아니라, 신문 스스로 전자적 정보전달에 몰두하는 움직임이 엄청나게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7월 초순, 미국의 주요한 신

전자정보서비스를 추구하는 미국 신문 · 출판업계

세계는 지금



있으며, 데이터는 유선으로는 가정에 또는 무선으로는 휴대자의 BOOK SIZE의 단말로 전송된다.

7월 23일자 WASHINGTON POST紙의 BUSINESS SECTION에 이런 조그만 기사가 실려있었다. NAA(미국신문협회; NEWSPAPER ASSOCIATION

문방송미디어그룹의 하나인 TRIBUNE社는 교육, 오락, 비즈니스정보 등을 쌍방향 멀티미디어형의 CD-ROM디스크로 제작하는 「CONFIDENCE MULTIMEDIA PUBLISHING GROUP」과 년픽션, 실용출판물을 발행하는 「컨템포러리 박스」의 2개 회사를 매수하는데 합의하였다.

그와 동시에 전자정보서비스를 통합하는 사업확대에 어울리게 同社 산하의 신문부문인 TRIBUNE NEWSPAPER社(CHICAGO TRIBUNE紙 등을 발행)의 명칭을 「TRIBUNE PUBLISHING社」로 바꾼다고 발표하였다.

4월의 NAA대회에서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미디어연구소 연구원인 러셀 뉴먼씨는 「신문의 핵심은 뉴스이며, 그 전달 방법은 종이로 제한되지 않는다. 신문업계에는 이제 신문 “紙”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 명칭도 미국 “NEWSPAPER”협회가 아니고, 미국 “NEWS”협회로 변경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여 참석자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TRIBUNE社 신문부문의 회사명에서 「NEWSPAPER」를 분리시키는 결단도 신문업계의 하나의 “NEWS”가 되었다. 同社는 또 작년년부터 PC통신망인 AMERICA ONLINE을 이용한 전자적 기사송신을 시작하였다.

올해 7월, ATLANTA JOURNAL AND CONSTITUTION社 등 16개 신문과 5개 TV방송국, 美國 5위의 CATV방송국 등을 소유한 COX ENTERPRISES社도 IBM과 SEARS ROEBUCK의 합병회사인 PC통신망 PRODIGY社와 제휴하여 연말까지 ATLANTA와 FLORIDA州 WEST PALM BEACH에서 통신망을 이용한 쌍방향전자정보통신을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同社の 신문부문 COX NEWS-

미국의 통신네트워크와 PC통신을 이용한 “전자신문”

◇ 아메리카의 컴퓨터 네트워크는 일본에 PC-VAN 및 NEFY-Serve와 같은 PC통신 상용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전용회선을 사용한 전자메일서비스, 각종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최근 대통령령앞으로 전자메일을 보내게 되었다고 화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본래는 군사학술연구용의 CLOSED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다수 존재한다. 아메리카의 주요 상용네트워크로는 America Online, Prodigy, CompuServe, Delphi, GEnie 등이 있다. 이것들의 가입자가 많은 것은, 미국에서는 통신비용이 저렴(예를 들면, 지역전화회사는 기본요금만이고, 시내 통화는 무료인 요금체계를 가졌다)하다는 배경이 있다.

◇ 컴퓨서브는 PED소프트웨어社가 발매하는 「JOURNALIST」라는 윈도우용 페이지레이아웃을 사용하여, USER가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자기가 좋아하는 레이아웃(WYSWYG)으로 뽑아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동사의 광고에 의하면, USER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스포츠뉴스, 주가데이터, 일기예보등)를, 기존의 자기가 좋아하는 레이아웃(25가지 정도의 FRAME=PATTERN으로부터 선택)에 흘러들어들도록 설정해 두고, 이후에 컴퓨서브에 접속하면, 데이터가 넘치는 경우의 PAGE SKIP까지 모두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요약하면, 데이터가 넘치는 경우의 PAGE SKIP까지 모두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요약하면, 일종의 “Tailored” 신문이며, 뒤에 프린터에 출력하면 된다. 주가와 같은 수치정보는 Excel 및 Lotus 1-2-3의 형식으로 변환가능하며, 사진 등의 이미지에도 대응한다. 그 소프트웨어 값은 129.95달러이다.

PAPER社의 데이비드 이스터리 사장은 「신문은 매일 가지고 있는 정보량의 불과 10%밖에는 인쇄하고 있지 않다. 컴퓨터 이용에 의하여 제공정보량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금후에는 신문기사의 말미에도 PRODIGY NETWORK에서 검색할 수 있는 색인 관련정보의 “참조코

드”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 지역정보제공에 노력을 경주하면서 예를 들어, 지방정치선거 토론의 신문기사의 말미에는 PRODIGY로 후보자의 연설문 및 약력 등도 찾아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PRODIGY가입자는 전미국에서 200만세대라고 알려지고 있

는데,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개시에 따른 증가가 예견되는 가운데 同社는 「독자와 신문사의 전자적 결합이라는 결실을 얻고 싶다」며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시험은 MEDIA CONGLOMERATE인 KNIGHT-RIDDER社의 SANHOSE MERCURY NEWS紙(CALIFORNIA)가 이미 5월부터 시작한 바 있다.(AMERICA ONLINE을 이용함).

대립으로부터 조화로

COX ENTERPRISES社는 6월에도 라이벌 지역전화회사의 하나인 BELL SOUTH社와 공동으로 전자정보서비스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하여 신문업계를 경악시켰다. 그와같이 경악한 이유는 전화 회선을 활용한 정보 서비스 사업참여의 야심을 품은 7개 지역전화회사(RBOC)에 대항하기 위해 신문업계가 「지역독점인 RBOC의 야심을 방임하여 인정한다면, 신문안내광고가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다」고 강경하게 반대, 2년간 법에 의한 제약을 요구하며 연방의회에 강력한 로비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COX ENTERPRISES社의 이스터리회장 자신도 「우리 신문산업의 허점을 이용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화회사와 협력할 용의가 있다」라며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회의에서 RBOC의 참여에 대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서비스내용은 신문의 안내광

고와 BELL SOUTH의 자회사가 발행하는 YELLOW PAGE(전화번호부) 광고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당초에는 종래의 전화신청에 따른 오디오 텍스 시스템으로, 장래는 PC를 통한 비디오 텍스, SCREEN PHONE, FAX를 통하여 최신의 광고정보가 얻어지게 된다. HOME-BANKING 및 HOME-SHOPPING도 가능하다. 우선은 ATLANTA에서 연말까지는 WEST PALM BEACH로 확대할 예정이다. BELL SOUTH社는 美남동부지역의 500도시 이상의 신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협력하여 제공하고 싶다고 한다.

나아가 8월에 들어서는, LOS ANGELES TIMES紙 등을 발행하는 대규모의 미디어그룹인 TIMES MIRROR社가 PRODIGY NETWORK를 이용하여 美국의 이용자를 대상으로하는 뉴스, 광고, 쌍방향정보서비스를 내년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신문기사만이 아니라 배경자료, 중요텍스트에 접근이 가능해 종래 PC로서는 입수하기 어려운 지역정보에도 역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앞의 COX社와 방향이 같다.

내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는 곳은, 산하의 LOS ANGELES TIMES, NEW YORK NEWS-DAY로 BALTMORE SUN 및 하프포드 클랜드도 뒤에 가담한다. 이 두회사도 역대 지역전화회사와의 관계를 구축중이라 한다.

6월에는, 사상 최고가격인 11

억달러로 BOSTON GLOBE紙를 매수한 NEW YORK TIMES도 확대되는 정보량을 기초로 전자정보서비스부문을 설립할 계획이라 한다.

신문과 지역전화회사의 새로운 관계를 살펴보면 올해 3월 NEW JERSEY州신문협회(NJPA)와 BELL ATLANTIC社는 兩者가 2010년까지全美에서 최초로 州內 전역의 가정에 빠짐없이 光FIBER망을 부설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15억달러를 투입하는 건설은 이미 시작하였다. 당초 신문측에서는 BELL ATLANTIC社가 고속 光FIBER를 사용하여 독점적 전자정보서비스분야에 참여할까 두려워하였으나, 합의에서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으나, 새로 설립되는 자회사가 NJPA에 가맹한 125개 신문사와 같은 조건으로 이 光FIBER망을 이용하게 된다고 말한다. 작년 제정된 州法에는 BELL ATLANTIC社가 전화요금 수입정책을 완화하여 모든 수입의 일부를 光FIBER망 부설에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 NAA도 전화회사 자체로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회사에 의한 정보서비스 사업참여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본래의 금지법안을 제정하는 것같은 노력을 경주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나타냈다.

출판분야도 전자화의 물결이

전자적으로 정보를 보내는 것은 물론 신문만은 아니다. 주간

CATV는 이미 150채널의 세계가 실현되어 있고, 디지털기술의 진보로 500에서 5000채널도 가능하다고 말해진다.

미국의 9200만 세대중에, 현재 약6000만 세대가 CATV를 수신하며 약 2500만 세대가 PC를 소유하고 있다(92년). 96년의 PC소유는 전세계의 약35%가 될 것이라 예측된다.

한편, 光FIBER는 91년의 560만마일에서 1600만마일로, 2000년에는 4000만 세대에 확장되리라라고 예견된다.

CATV회사와 전화회사가 ELECTRONIC SUPER HIGHWAY의 구축을 서로 다투면서, 동시에 제휴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개별 산업영역의 경계선이 없어지고 (CONVERGENCE) 하나의 '쌍방향 INFORMATION산업'이 된다는 것이며, 미래의 설정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CATV의 선두주자인 TELE COMMUNICATIONS社(TCI)는 지난 4월, 96년말까지는 20억달러를 투자하여 400개 이상의 도시에 光FIBER망을 부설, 同社고객 1000만 세대의 약 9할이 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마찬가지로 同 2위사인 타임 워너社에 라이벌 전화회사인 US WEST社가 25억달러를 투자하여, 정보오락 산업에 참여를 도모하고, 타임 워너社는 그 원조를 얻어 금후에 50억달러를 쌍방향시스템에 투자할 계획이다(5월). 同社와 TCI, 최대 소프트웨어회사인

MICROSOFT社도 쌍방향 TV개발을 위한 새로운 회사「CABLE SOFT」를 설립한다. US WEST社도 내년부터 14개州的 1300만 세대에서「VIDEO DIAL TONE」이용을 위해 光FIBER와 同軸케이블을 부설한다.

신문의 우수성을 어떻게 살리나

급전개되는 「뉴미디어 현상」의 단면은 이상을 지금까지 소개했지만, 신문계도 개별적으로 또는 他산업과 협력하여 「전자신문」의 가능성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아는 바이다.

GARNETT, TIMES MIRROR, KNIGHT-RIDDER, TRIBUNE 등의 주요한 신문그룹 및 방송사, IBM 그리고 BELL SOUTH 등의 전화회사가 컴퓨터네트워크와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휴대용 소형컴퓨터로 기사를 읽고 가정에서 인쇄도 가능한 전자신문을 개발하는 공동사업, 「미래의 뉴스」를 MIT의 미디어연구소에 위탁하였다(5월).

또 KNIGHT-RIDDER의 정보디자인연구소도 10년 이상을 목표로 기사만이 아니라 비디오 및 음성도 시청할 수 있는 저렴하고도 간단한 소형 휴대용 전자타블렛신문을 개발중이다. 이 비디오와 프린트를 결합하는 장치는 7-10년후면 약 200달러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同 연구소의 로저 피드라스장은 「20-30년 이내에 전자출판이 프린트출판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고 예측하고, 마찬가지로 KNIGHT - RIDDER 계의 SANHOSE MERCURY NEWS紙의 로버트 잉글씨는 과장된 「紙」對「電子」논쟁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지금은 쌍방의 가장 우수한 점만을 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신문사에는 뉴스를 취재하여 포장하는 누구도 할 수 없는 利點이 있으며, 신문은 신기술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얻는 입장에 있다」.

피드라스장은 4월의 ASNE (AMERICAN SOCIETY OF NEWSPAPERS EDITORS : 미국신문편집자협회)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글은 일본의 「신문기술」 145권에 소개된 일본신문협회 在藤嘉男씨의 논고이며 이규천*씨가 옮긴 것이다.

* 역자는 조선일보사 전산본부 DB에 근무하고 있다.